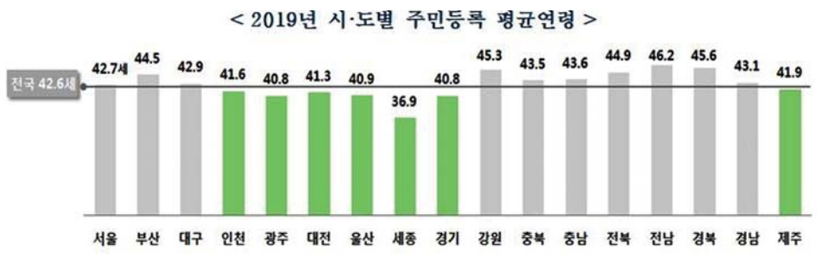
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9월 창간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10월 26일 제 2850호 ihonam@naver.com 2020년 1월 13일 (음력 12월 19일) 월요일

한국인 평균연령 42.6세…전남 46.2세 '최고령'



2019 주민등록 인구 5185만명…1년간 2만명↑

광주광역시 40.8세…세종시 36.9세 '가장 젊어'

지난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린 평균 연령은 42.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최고령 지역은 전남으로 46.2세였으며,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6.9세였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2018년 5182만6059명에 비해 2만3802명이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구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000만~510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2598만 5045명(50.1%), 남자는 2586만 4816명(49.9%)이며,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더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40대(16.2%)와 50대(16.7%)가 전체 인구 3분의 1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22.8%,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0%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인구(15.5%)와 0~14세 인구(12.5%) 차이는 더 벌어졌다.

2018년과 비교해 0~14세 인구는 16만명, 15~64세 인구는 19만명이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38만명 증가해 800만명을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2.6세로, 평균연령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36.9세), 광주·경기(40.8세), 울산(40.9세), 대전(41.3세) 등 7개 시도이다.

더 나아가 지난해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2018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6만2513명), 세종(+2만6449명), 제주(3798명), 인천(2384명), 충북(755명) 총 5곳이었다.

반면 서울(-3만6516명), 부산(-2만7612명), 대구(-2만3738명), 전북(-1만7915명), 대전(-1만5066명), 전남(-1만4225명) 등 12개 시·도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자세한 사항을 행안부 누리집 '정책자료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올해 더욱 강력한 인구유치 정책 추진…인구 위기 극복 할 것"

귀향청년부부 U-turn 플러스 정착 장려 지원 등 새롭게 추진

고흥군은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구정책은 △귀향청년부부 U-turn 플러스 정착 장려 지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문화생활지원 △청년유턴 고향사랑 사관학교 운영이 있다.

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 △청년 내일아트(my job&future, Art) 공간 조성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 등도 마련했다.

기존 정책 중 확대시행하는 시책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확대 운영 △귀향청년 주택화재보험 지원한도 증액(10만원→20만원) △고흥사랑 귀향귀촌 상생 업무협약 대상 확대(5개 향우회) △지역민 공동체 형성 집들이 비용 지원 조건 완화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공동체 운영 △귀농귀촌인과 주민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군은 이러한 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읍·면 총무팀장,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인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군민과 전국 각지의 향우회를 찾아가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청년향우와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더욱 강력한 인구 유입정책을 전개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분야 확인검사능력 '우수'

"질본 기술 이전 안된 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 노력"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2019년 법정감염병 외부정도평가'에서 감염병 확인검사능력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관광객들 발길 끊이지 않는 목포근대역사관 지난 10일 오후 시민들이 전남 목포시 대의동 목포근대역사관 1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영사관으로 쓰였고, 최근 한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평가는 질병관리본부가 해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홍역, 에이즈 등 법정감염병 확인검사 담당자의 검사 능력과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담당자는 분야별 감염병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야 확인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마다 법정감염병 47종 69개의 병원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진단법 기술을 이전받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와 해당 병원체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정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서진종 감염병조사과장은 "감염병은 대부분 감염력이 높아 빠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자의 진단능력 인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감염병으로 관리중인 86종의 감염병 중 기술 이전이 안된 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